



2030세대 공감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

박노동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

연구진

연구책임

- 박노동 /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

I. 연구의 목적 및 방법

1.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2012년 현재, 20대-30대는 2030년 대전시 발전 비전에서 대전을 이끌어갈 중추세대로 성장
 - 현 2030세대의 정책요구와 참여 양태는 향후 대전시 발전방향 및 전략 수립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함

- 이른바 3포세대(연애, 결혼, 출산 포기)로 지칭되고 있으면서도, 정치 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세대로 성장한 현 2030세대의 정체성을 확인
 - 상향이동욕구에 대한 불안감, 미래 지역발전에 대한 암담한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의 발전 비전을 2030세대의식에 투영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

- 미래지향적 시정을 지향하는 대전광역시 정책방향에 2030세대 공감 시책이 핵심
 - 2030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요구를 반영한 시책발굴로 젊은 도시 대전의 도시경쟁력 제고

- 새로운 정책환경에 조응한 시책 요구
 - SNS 등 신개념의 미디어를 통한 정치 및 사회참여의 핵심계층으로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시책 소통 방식을 구축하고, 즉각적,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책 추진

2. 연구내용과 방법

-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됨
 - 2장은 현 2030세대의 삶의 궤적과 생활양식을 파악하고자 정체성과 생활욕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
 - 3장은 대전시 2030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전시 2030세대의 특성과 시책에 대한 요구를 상세히 파악
 - 4장은 앞선 기초분석을 토대로 2030세대 공감시책의 발굴과 추진전략,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

-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2030세대 대상 정책요구 설문조사 및 분석, 2030세대 연구자 초점집단 토론(FGI)를 병행함
 - 설문조사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500명의 2030세대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100명의 균등 할당을 하여 생활에 대한 만족도, 태도, 시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
 - 전문가 FGI는 미리 시책 건의를 요청한 후, 자문회의를 거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

II. 2030세대의 정체성과 욕구

1. 2030세대의 정의

- 2011년 현재 20대와 30대로 살아가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들을 2030(청년)세대로 지칭
- 2030세대는 2012년 현재 만 19세부터 만 39세가 연령대를 지칭
 - 인구학적으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출생자임
- 이러한 세대 정의를 통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층의 삶과 의식을 탐색적으로 접근, 공유된 가치 이상으로 2030세대 내부의 단절된 의식과 생활방식에 대하여서도 살펴 봄

2. 2030세대의 정체성

- 1) 고등교육기관 취학 경향
 - 고등교육기관 취학율, 진학률 지속적으로 증가, 대학진학 확대
 - 고등교육기관 취학율 : 11.4%(1980년) -> 70.1%(2010년)
 - 고등교육기관 시설수 : 237개(1980년) -> 371개(2010년)
 -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: 613,566명(1980년) -> 3,327,525명(2010년)
 -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: 일반계고 39.2%(1980년) -> 81.5%(2010년)
전문계고 5.0%(1980년) -> 71.0%(2010년)
-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2015년 이후 졸업자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
 - 초과졸업자수 : 42,199(2011년) -> 203,515(2025년)

- 대학진학 성별 격차는 감소, 사회계층간 격차는 지속
 - 대학진학자 남성 대비 여성 비율 20대 92.89%로 격차 사라짐
 - 아버지 교육수준 초등학교졸, 자녀 대학 진학 54.5%, 대졸일 경우 93.69%(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)
 - 고졸 대비 대졸 임금 격차 확대, 대기업 입사 고졸 감소

2) 취업과 직장 생활

- 입직연령 25세, 청년 일자리 감소 및 임시·일용 증가
 - 첫 일자리 진입연령 : 22세(1995) -> 25세(2010)
 - 학교 재학자 비중은 늘어나는 대신 비재학중인 비경활자는 줄어들
 - 취업할 경우 임시 및 일용직 취업하는 경향 지속
- 직업선택시 수입·공공기관 선호
 -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에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 요인은 수입
 - 2030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
- 27세 이후 고용률 70%, 중년층과 청년층 임금격차 확대
 - 고용률 70% 도달시기 2010년 고졸 28세, 대졸 27세
 - 중년층과 청년층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
(40-44세의 임금대비 20-24세의 임금 : 55.8%(1995) -> 46.9%(2010))
-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지속적 증가, 니트(NEET) 30여 만명
 - 청년층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 지속적으로 증가
(청년층 NEET 인구 : 255,000명(2003) -> 297,000명(2009))

- 월평균 192.8시간 근로
 - 전반적으로 평균근로시간을 줄어 들고 있음
- 20대 초반 평균 근무기간 1.3년
 -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근로기간이 길어짐
- 3) 혼인의식, 태도
 - 초혼연령은 남성 31.8세, 여성 28.9세로 만혼화 뚜렷
 - 결혼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만혼화 경향 확산
 - 대전의 초혼화 연령은 남성이 2010년 31.6세, 여성이 29세
 - 경제적 어려움, 미래 불확실로 혼인 늦춰
 - 20대의 결혼 적령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뚜렷
 - 20대 후반 미혼자는 자기개발을 이유로 결혼 지연
 -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남성은 외형적 조건, 여성은 경제적 조건 우선시
 - 2030세대 결혼비용은 자녀 및 부모 모두에게 부담
 - 기혼여성 평균 결혼비용 1,976만원
 -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으로 인한 2030세대의 경제적 자립도 약화는 결혼비용의 부모의존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
 - 반드시 결혼해야한다는 응답비율 감소
 -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,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확산
 -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는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

- 4) 출산과 가족생활, 교육
 - 출산율 지속적으로 감소, 평균 출산 연령은 31.3세
 -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연령은 증가하는 추세
 - 자녀를 출산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 요인 존재
 - 15-34세 분가 비중 35.8%, 미혼 분가 증가
 - 결혼분가는 감소하는 반면 미혼분가는 증가
 - 2030(청년) 세대 부모 부양 의견 및 부모교류 감소
 -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족에서 가족과 정부/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 변화
 - 공평한 가사분담에 동의하나 실제 여성이 대부분 분담
 - 2030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부부간 공평한 가사분담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으나, 실천률은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함
 - 2030 세대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은 편
 - 2030세대가 그 이전 세대보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높음
 - 2030세대 이웃사촌 개념 퇴색
 - 저출산과 핵가족화 등으로 가구원수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
 - 2030세대의 가장 중요한 거주지 선택요인은 출퇴근 및 통학시간의 부담정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
 - 2030세대는 이전세대에 비해 이웃사촌의 개념이 약한 편

- 부모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심화
 - 중산층 전체 지출의 22%를 자녀교육비로 지출
 - OECD국가중 GDP대비 사교육비 비중, 연간 16조원 1위(OECD 통계 연보 2006)

3. 2030세대의 생애단계 과제별 특성

- 통계적으로 보면, 현 2030세대의 각 연령대별 주요 생애과제와 사회적 처우는 아래와 같음

연령대	과제 영역 및 세부내용		사회적 처우(현실)
20대	일자리	취업준비	졸업후 평균 11개월 재학중 취업과외비 연 200만원 정규직 대기업 대졸 초임 224만원
		소득	중소기업 대졸 초임 176만원 비정규직 월평균 88만원
		고용불안	20대 55% 비정규직 신규 채용에서 계약직 채용 수 증가 정규직 전환비율 7%
30대 초반	결혼비용		남 9,600만원 전세 8,500만원 여 3,300만원
30대 중반	내 집 마련	전세값 인상	물가상승률 3배(서울은 4배)
		분양가 상승	분양가 자율화 이후 215% 상승
	지불능력 한계	소득은 동기간 42% 증가 월저축 가능액의 80만원 이내 믿고 맡길 보육시설 없다는 응답	
육아	보육시설	국·공립보육시설 비중 4.8%	
	휴가제도	출산휴가 30.5% 사용 육아휴직 4% 사용 결혼·출산·육아로 직장 그만 둔 엄마 64.5%	
30대 후반	교육	사교육비 폭증	사교육비 증가율 12% 소득증가율 5.3% 중산층 평균 89만원

III. 대전시 2030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책 요구

1. 대전시 2030세대의 인구학적 특성

- 대전시의 현 인구분포를 보면, 전체 인구중 31.3%를 점유함
 - 2010년 12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로 20세-39세 연령대의 인구는 469,916명으로 총인구 1,503,664명의 31.3%에 달하고 있음
- 2030세대는 2030년 대전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미래 핵심세대
 - 인구추계에 따르면, 2030년 이들은 40세에서 59세의 연령대에 걸쳐 대전시 전체 인구의 30.0%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
 - 노동생산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대로서 대전시 발전을 지탱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연령층이라 할 수 있음

2. 대전시 2030세대의 의식과 태도 조사 분석

1)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대전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운영의 일환으로 20~30대 연령층의 의식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2030세대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대공감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됨

2)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2012. 2. 20 ~ 2. 29
- 조사대상 : 대전광역시 거주자 500명

(성별·자치구별 같은 표본수, 연령별 4세 단위 표본수)

- 조사방법 :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:1 대면면접조사/결과자료 코딩 및 분석
-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±4.38%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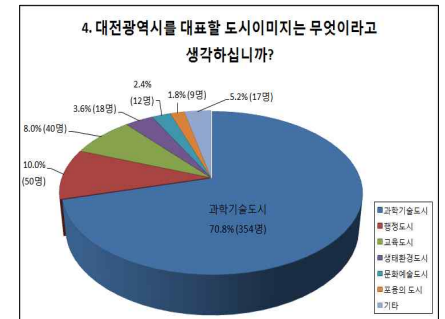
3)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

구분		빈도	퍼센트
성별	남성	250명	50.0%
	여성	250명	50.0%
연령	① 20세~24세	123명	24.6%
	② 25세~29세	127명	25.4%
	③ 30세~34세	119명	23.8%
	④ 35세~39세	131명	26.2%
거주지	동구	100명	20.0%
	중구	100명	20.0%
	서구	100명	20.0%
	유성구	100명	20.0%
	대덕구	100명	20.0%
	기타	0명	0.0%
거주기간	1년 미만	16명	3.2%
	1년~5년 미만	44명	8.8%
	5년~10년 미만	37명	7.4%
	10년~15년 미만	61명	12.2%
	15년~20년 미만	99명	19.8%
	20년 이상	243명	48.6%
직업	회사원	147명	29.4%
	전문직	70명	14.0%
	공공기관(군인, 공무원, 공기업 등) 종사자	37명	7.4%
	대학(원)생	110명	22.0%
	자영업	59명	11.8%
	취업준비생	43명	8.6%
	주부	34명	6.8%
참여자수	500명	100.0%	

4) 조사 및 분석 내용

- 2030세대의 일반적 의식
 -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.33점으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며,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
 -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은 자랑스럽다는 비율이 49.8%로 자랑스럽지 않다라는 비율 9.4%를 크게 상회함
 - 대전광역시에 대한 자긍심 또한 자랑스럽다는 응답비율 44.4%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비율 6.2%보다 아주 높게 나타남
 - 대전광역시를 대표할 도시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 과학기술도시라는 응답비율이 70.8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항목	빈도	%
과학기술도시	354	70.8
행정도시	50	10.0
교육도시	40	8.0
생태환경도시	18	3.6
문화예술도시	12	2.4
포용의 도시	9	1.8
⑦ 기타	17	5.2
합계	500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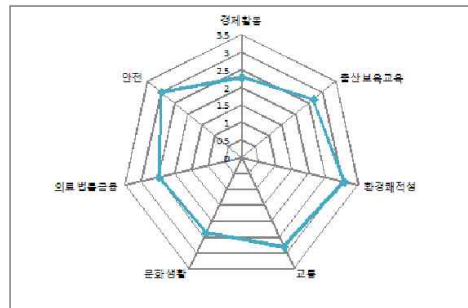


- 대전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앞선 자긍심과는 다른 결과로 높다는 판단이 19.2%로 낮을 것이다라는 판단 35.0%에 비하여 낮은 응답비율을 보임
-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관심 정도 또한 유보적인 응답인 그저 그렇다가 51.8%, 적다라는 응답이 26.4%, 많다라는 응답이 21.8%로 비교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, 시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

○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

- 타도시에 비해 대전의 거주(생활)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물어 본 결과,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평균 2.67점으로 나타남
- 7개 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는 환경이 3.07점으로 가장 높았고, 안전(3.00) > 대중교통(2.82) > 아이키우기 및 교육(2.67) > 고급서비스 수준(2.47) > 문화생활과 여가(2.36) > 경제활동(2.29)의 순으로 나타남
- 현 2030세대의 만족도가 낮은 문화생활 여건 및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시급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

항목	점수
경제활동(취·창업,기업,쇼핑 등)	2.29
아이 키우기(출산·보육) 및 교육	2.67
환경(공원녹지,하천,공기) 쾌적성	3.07
대중교통 이용 및 도로 관리	2.82
문화생활(전시공연스푸츠)과 여가	2.36
고급서비스(의료법률금융) 수준	2.47
재난재해, 범죄로부터 안전	3.00
전체	2.67



- 타도시에 비해 대전은 2030세대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, 그렇다라는 응답이 42.6%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30.8%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대전이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(27.8%), 수준 높은 공연·전시(19.6%), 편리한 대중교통체계(15.6%)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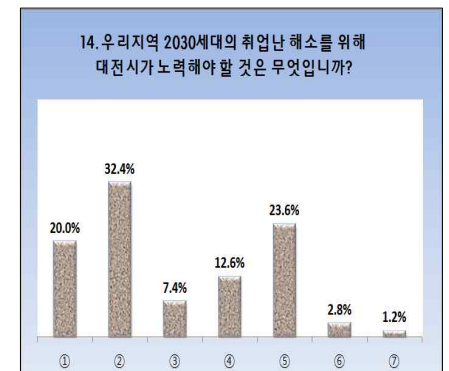
- 2030세대가 대전광역시 시책 홍보시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생각하는 것은 TV방송인 것(64.4%)으로 나타났으나 SNS라고 응답한 비율과 인터넷신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.8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

3. 2030세대의 정책요구

○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

- 2030세대로서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고용안정성이 가장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는 보수 및 수입, 직업의 보람(하고 싶은 일) 순으로 나타남
- 취업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 본 결과, 좋은 일자리 부족 54.2%, 일자리 정보 부족 15.0%, 지방학교 출신 차별 13.2%의 순으로 나타나, 2030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마련이 정책적 과제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
-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우선해야 할 정책은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,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, 청년고용할당제 및 장려금 확대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내 취업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함

항목	빈도	%
① 청년고용할당제, 장려금 확대	100	20.0
②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	162	32.4
③ 기업 인턴십 지원	37	7.4
④ 개인능력개발(학원비 등) 지원	63	12.6
⑤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	118	23.6
⑥ 대전시 주관 취업캠프 운영	14	2.8
⑦ 기타	6	1.2
합계	500	100.0



(※ 기타 - 대기업 유치, 비정규직 처우개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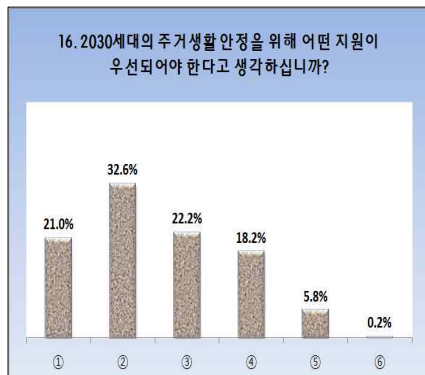
○ 결혼과 주거안정에 대한 요구

- 2030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비용

부담 때문이 34.6%, 미취업상태이기 때문 23.6%, 직업·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가 22.0%의 순으로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남

- 결혼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2030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, 이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, 아파트 분양가 저감이 32.6%, 내집마련 자금 특별용자가 22.2%,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21.0%, 공공 임대주택 확대가 18.2%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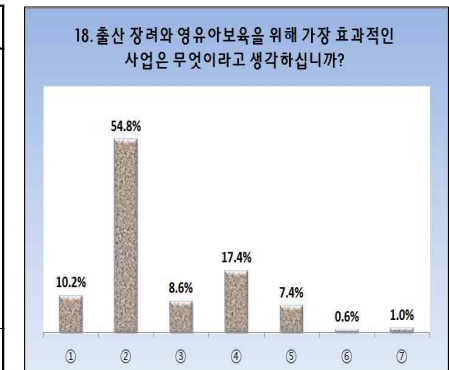
항목	빈도	%
① 소형주택 공급 확대	105	21.0
② 아파트 분양가 저감	163	32.6
③ 내집마련 자금 특별용자	111	22.2
④ 공공 임대주택 확대	91	18.2
⑤ 전세자금 특별용자	29	5.8
⑥ 기타(신용대출)	1	0.2
합계	500	100.0



○ 출산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

- 2030세대가 결혼 이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향후 보육비가 부담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42.4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가 37.6%에 이르러 이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
- 출산 장려와 영유아보육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, 월별 유아보육료 지원이 54.8%, 보육시설 확충 17.4%, 일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이 10.2%로 나타남
- 월별 유아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지원액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항목	빈도	%
① 출산장려금 지급(일시금)	51	10.2
② 유아보육료 지원(월별)	274	54.8
③ 다자녀 가족 할인·감면제도	43	8.6
④ 보육시설 확충	87	17.4
⑤ 어린이 무상의료	37	7.4
⑥ 태아·어린이보험 가입	3	0.6
⑦ 기타	5	1.0
합계	500	100.0



(※ 기타 - 무상교육, 안정적인 직업, 육아휴직제도, 저렴한 보육료 등)

○ 기타 대전광역시 2030세대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 요구

-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대전시가 2030세대공감 시책으로 추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, 응답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

구분	내용
취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로 다양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 - 체계적이고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- 근무하기 자랑스러운 직장 분위기 조성 - 기업인턴십제도 및 기업연계 프로그램 개발·운영과 적극적인 활용 - 연구단지에 지역출신 고용 요망 - 수도권 수준의 임금 인상 -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청업체 및 도급업체 관리 감독 철저 - 노인과 저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- 지역활당제 및 지방대출신 취업제도 확대
출산·보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유아 보육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정책 추진 - 육아지원 확대 - 보육료 확대, 자치구별 동일한 출산 장려금 지원 -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확충·관리
문화·스포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30세대 건전한 놀이공간 부족 - 2030세대 문화·체육시설 및 공연시설 마련 - 다양한 공연 유치 - 공연이나 문화산업 투자로 콘텐츠개발 촉진 - 스포츠 및 레저공간 확대 -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

IV. 대전시 2030세대공감 프로젝트

1. 시책 개발과 추진 원리

- 세대 특화 전략
 - 현 2030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,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
 - 수요가 확정되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강구
 - 실질적 수요파악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

- 시정 유인요소 개선
 - 2030세대의 취향과 자율을 중시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 강구
 - 정보화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고,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내용은 시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 도입

- 프로그램과 수혜자의 Matching
 - 대전시 2030세대들이 시정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, 일단 참여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인 도움

- 멘토링
 - 2030세대 시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참여자와 수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 알선하는 전문인력(mentors)을 배양하여 이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수요를 파악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청년층의 자문과 문의에 응하도록 함

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형주택공급 확대 - 아파트 분양가 인하 -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
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금 인하 - 장학금 확대 운영 - 도서관 확충 - 공교육의 질적 향상,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- 전문직을 위한 다양한 무료교육 실시 - 지방대학 편견 해소 - 고등학교 의무교육화
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- 지하철 노선 확대, 대덕구 지하철 개통 - 편리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마련
도시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마련 - 녹지 공간 확대 - 하천 생태 살리기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전의 특색을 살린 자체적 제도 마련 - 물가안정 - 4대강 사업 중단 - 흔들리지 않는 공무수행 - 의료서비스 확충 - 장애인 복지정책 활성화 - 지역발전과 범죄예방 - 지방자치제 폐지

- 정책네트워킹
 - 시책에서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정책들을 유형별로 조사하여 정책 연결망을 구축
 - 유형별 정책연결망은 연령별 연결망, 혜택별 연결망, 수요 연결망 등으로 확대, 발전
 - 예를 들어 주부연결망을 구축하여 주부들이 아동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보건과 의료 정보를 전파할 때 유용하게 활용
- 포커스 그룹 접근
 - 2030 연령층 내에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요하는 집단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,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강구할 필요가 있음

2. 대전 2030세대공감시책의 구조

- 전체적으로 5개 분야의 정책유형을 제시
 - 인적자원개발로부터 정보화에 이르기까지 2030세대의 일상생활, 결혼, 자녀양육에 밀접한 영역을 포괄
 - 실현가능성이 높은 메뉴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내용을 구성
- 제1분야 : 취업 역량 강화
 - 지식,정보, 기술교육을 통한 대학지원 시책 강화
 - 파트너쉽과 인턴쉽을 활용한 취업역량 강화
 - 취업뱅크 운영
 - 벤처, 창업지원
 -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체 연계 강화

- 제2분야 : 2030세대 자조모임 및 멘토링 강화
 - Mentor / Mentee 연계 지원
 - 대전2030세대 off line 모임 활성화
- 제3분야 : 2030세대 문화활동 강화
 - 전문문화산업인력 양성 교육 강화
 - 분야별 문화예술프로그램 강화
 - 공연티켓지원
 - 동호회 활동지원
- 제4분야 : 사회서비스 교류 활성화
 - 2030세대 만두레 활성화
 - 자원봉사 활성화
 - We Start
 - 미혼모 서비스 강화
- 제5분야 : 행복한 결혼생활, 안전한 보육지원
 - 여성취업활동 지원 강화
 - 보육지원

3. 세부 추진방안(사업제안)

1) 취업역량 강화

1-1. 대전 청년 Job Bank / Work-Net 운영

-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
 - 대전광역시 및 충청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기구의 정보를 수합하여 2030세대에게 제공하는 정보채널 운용
 - 구인, 구직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, 구직의 요건과 자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가칭 대전 청년 Job Bank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
 - 구직, 구인, 교육훈련, 창업지원과 관련된 종합채널로 구직하려는 청년층과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게 One-stop service를 제공
 - 관내 대학의 취업정보센터, 종합고용센터, 관내 인력은행과 연결해서 노동시장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

1-2.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

-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
 - 기업체의 직무수행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요중심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

-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으로 학과실설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
- 기업의 취업예약 장학금 등 인재를 유입하는 여건 조성
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대전시는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및 정보제공, 산업유형별 수요인력 정보파악 DB화
 - 대학은 기업맞춤형 학과 조정, 커리큘럼 조정
 - 기업과 대학간 인재양성공급 협약에 의해 추진

1-3. 대학생 취업지원 확대

- 사업필요성 및 목적
 - 대학생 창업활동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- 지역대학 출신 대학생의 취업성과 제고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지역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생 채용 우수 지역기업에 인센티브 제공
 - 대학생의 창업활동 유도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확대 및 창업박람회 개최
 - 대학취업시즌과 연계하여 대학생 취업박람회 개최
 - 외국의 기업들과 시와의 협약을 통하여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

1-4. 청년소기업 창업지원 기금 조성

- 사업필요성 및 목적
 - 지역소기업, 대안기업,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확대에 따라, 2030세대가 창업을 통하여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가칭 충청권 청년소기업 창업 지원기금 조성
 - 무담보, 저금리 장기 융자 또는 투자
 - 최소 500개 이상의 청년소기업 창업 기금 지원
 - 이윤의 10%이상을 재투자 또는 기부 등으로 사회환원을 원칙으로 함
 - 2030세대를 위한 소기업 창업 학교를 개설하여 창업동기 부여

2) 2030세대 공감 자조모임 및 멘토링 강화

2-1. 2030세대 통합멘토링 체계 구축

- 사업필요성 및 목적
 - 정책연결망 개념으로서 통합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전시 2030세대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특정한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그것에 응답하여 적재적소의 기관과 기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함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대전시 콜센터와 연계하되, 다양한 2030세대들의 수요에 적합한 전문 멘토를 확충하고 보육, 여성파트타임, 지역축제 참여,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활용

2-2. 2030세대공감 Mentoring 시범 운영

- 사업필요성 및 목적
 - 멘토링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범운영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
 - 시범운영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취업정보센터 연결망 구축 :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 포털사이트의 취업정보란을 보다 확대하여, 2030세대 및 대학생들에게 취업정보망을 가동하고, 재취업교육, 실업보험 급여, 취업알선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
 - 정책사업 멘토링 : 대전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블런티어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시정의 핵심사업에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정책사업 멘토링 제도 운영
 - 문화활동 멘토링 : 2030세대들이 음악, 연극, 영화 등의 문화활동을 하고자 할 때, 문화활동 모임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도와주고, 문화산업인력 양성기관을 소개하고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프리랜서 혹은 특정 직장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함
 - 보육멘토링 : 지역내 보육기관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와 비용을 파악하여 2030수요자들에게 제공토록함.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

부부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의 보육기관을 알선

3) 2030세대 문화활동 강화

3-1. 문화산업인력 양성

- 사업필요성 및 목적
 - 2030세대의 주요 관심이 문화에 있으며, 문화소비와 문화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, 문화세대로서의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음
 - 지식기반의 핵심사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코자 문화산업의 주력으로 2030세대를 양성토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을 통하여 3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
 -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한 정보기술소프트웨어분야 특성화 교육 지원
 - 대전연합교양대학에 문화산업인력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문화산업분야 전략화 수범인력 집중 양성 및 취업지원

3-2. 문화활동 동아리 육성

- 사업필요성 및 목적
 - 문화의 다양한 영역별로 2030세대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, on-line 및 off-line 동호회 활동 지원
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문화정보 제공기관과 영역별 동호회 연계 웹사이트 제공
 - 각 영역별 최신 공연물, 최근 현황 등등에 대한 평론 연재물 게재
 - 문화산업 인력수급, 일자리 현황을 소개하여 미래 취업에 대비하도록 각종 정보 제공
 - off-line 동호회 육성을 위한 활동경비 보조
 -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공연티켓, 영화티켓, 음악회 관람티켓 할인 지원
 - 문화활동을 부업으로 하려는 사람이나 미취업상태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려는 사람들 중 일정한 숙련을 습득한 사람들을 프리랜서로 등록케 하여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일자리와 연계

4) 사회서비스 교류 활성화

4-1. 사회서비스 교환을 위한 2030세대 만두레 운영

- 사업목적 및 필요성
 - 지역내 2030세대의 노동력, 지식, 기술 등을 상호 교환하여 자조, 자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교환체계로 2030세대 만두레를 구축하여 운영
 - 각종 사회서비스를 매수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자신의 기술이나 잠재적 능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줄이는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체계로 활용

○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대전복지재단의 대전만두레에 2030세대를 위한 만두레 교환서비스 품목 개발
- 각 구별이나 동별로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고 수요자-공급자간 연결 지원
- 육아 등 가사 품앗이, 각종 강습, 자원봉사 등 환금성이 없으며 문화·복지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2030세대만의 품앗이 형태로 2030세대 만두레 운영

4-2. 2030세대 자원봉사 네트워크구축 및 활동 활성화

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자원봉사 경험이 풍부하고 의욕 있는 2030세대에게 유용한 자원봉사 기회에의 접근을 제공하도록 환경 및 기반 구축

○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대전광역시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2030세대의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한 결연 프로그램 운영
- 대전광역시의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와 대학생의 1:1 결연사업 추진 (교육만두레 연계)
- 의료봉사 등 대학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 발굴, 취약지역과 연계 지원

5) 행복한 결혼생활, 안전한 보육지원

5-1. 휴가·휴직제도 개선

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유자녀 직장인들의 경력단절을 지양하고 부모 역할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나 당초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
- 육아휴직제도 활용 장애를 제거하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여 출산률 제고
- 2030세대가 건전한 맞벌이 가족문화를 가정 실생활 속에 전파하고 출산관련 이해관계자의 사회보장 문화를 구체화

○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육아휴가·휴직제도를 잘 이행하여 출산률 제고에 기여한 직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(포상금,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우선권 제공)
- 우수 직장과 활용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
- 출산휴가와 육아휴가·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비하는 출산·육아 대체인력뱅크 구축·운영(공공기관 시범 운영 뒤 여성 다수 고용장으로 확대)

5-2.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지원

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2030세대의 노동시장 진입형태가 맞벌이 부부,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근로자, 결혼 이주 여성근로자 등이 증가하면서 출산이나 육아에

대한 부담이 배가되고 있음

- 유연근무제 도입을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 양립, 자기실현 욕구 증
가에 부응토록 유인
- 지역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과 도입율을 유형별로 조사하여 정기
적으로 공표, 조사 결과에 따라 유연근무제 유형별 적합 업종 및
직종, 시간제 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제공

○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출산·육아로 취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2030세대 대상자를 중심
으로 단시간 근로의 장을 제공
- 대전시의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반한 스마트워크시스템을 갖
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(스마트워크센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
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재택·원격근무를 신청한 임직원들이 본인
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방문하여 일할 수 있는 근무 공간)
- 스마트워크센터 내 혹은 인근에 보육시설, 병원 등을 함께 집적하
여 안심 보육과 근로 통합

5-3.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

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대전권내 빌딩 혹은 준별로 다수 기업·기관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
성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
- 기업의 자발적인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
화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

○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일정규모 이상의 빌딩·공단을 중심으로 기업·기관·단체가 컨소
시엄을 구성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 및 각종
행정절차 등을 추가 지원
- 기업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새로운 기회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증
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추진(가족친화기업인증제의 인센티브 홍
보 강화)
-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적합한 가족친화경영 대안을 제시하는 컨
설팅 제공
- 가족친화기업인증 인센티브 확대

5-4. 신혼부부 보금자리 사업 실시

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현 2030세대는 주택 구입 및 임차 등 결혼 비용 증가로 결혼과 출
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
- 이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·전세자금 대출, 근로자·서민 주택
구입자금 대출, 미임대 국민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에서 신혼부부
에 한하여 기준·기한 완화, 우선권 등의 혜택 제공
- 중앙정부 지원사업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
홍보와 더불어 지역 주택시장과 연계한 신혼부부 주택 임대·매매
지원 사업 확대 추진

○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대행서비스 제공(각

중 신문, 정보소식지, 주요 홈페이지 등에 게재)

- 신혼부부 주택 임대·매매 우선 지원(미분양 주택 임대 및 매매 우선권 제공, 주택 임대·매매 증계료 지원)

5-5. 행복한 결혼문화 장려 사업

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결혼의 긍정적 가치를 스스로 이루고 전파하는 지역사회주민 운동을 전개하여 결혼·출산을 장려하고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
- 2030의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에 원활하게 이를 수 있도록 온라인 결혼지원 사이트 개설 운영

○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지역주민 인식개선에 기반한 행복 결혼 만들기 실천 운동 전개(지역사회 구성원 생활영역에 자리 잡지 못한 출산문화 이슈를 가시화하고 자발적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출산친화적 생활문화 구현)
-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인 공동체와 구성원의 개성과 특성을 중시하고 지역단위 연대를 통해 실행력 배가(다양한 유형의 집단들이 협력하고 공동행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)
- 지역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을 지원하는 온라인 결혼지원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(방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DB구축과 온오프라인 만남 등에 경험이 풍부한 결혼정보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)
-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결혼정보의 상담서비스 제공

- 결혼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연계하고 다양한 활동영역과의 조합을 통해 매칭프로그램의 기능 지속
- 지역에서 제공하는 결혼·출산 지원책을 알리고 활용 경험 사례를 공유하는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를 선정하여 관련 활동 지원(관련 전문 정보와 활동비 지원)

5-6. 자녀보육공동체 활성화

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임신·출산가정과 더불어 전 지역사회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보육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보육시스템 구축
- 이웃 간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1대1 교환 보육 및 교육활동을 통해 보육공동체 실현

○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
- 지역활동가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단위로 (가칭)키움 네이버후드 회원모집 및 활동지원
- 보육정책과 사업에서 소외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발적 시민공동체로 육성
- 자녀의 돌봄, 학습, 놀이 등을 이웃간 교환노동으로 해결(이웃끼리 자녀 돌봄, 학습, 놀이 등의 노동력을 지고 갚음)
- 이웃 간 신뢰와 인정에 바탕한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

5-7.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

- 사업목적 및 필요성
 - 지역경기침체 장기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저소득 아동 및 가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, 지역 위기아동 발굴과 효과적인 통합 지원을 위해 지역 대학생을 연계활용하는 멘토링 사업 추진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지역 위기아동 이웃 네트워크에 기반 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전문직 인 지원팀을 확대하여 전 생활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
 - 위기아동과 대학생 멘토링사업 추진(지역 소재 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, 대학생이 위기아동의 학습 및 정서발달 지원, 대학생,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멘토 모집 및 교육)

5-8. 가족상담프로그램 운영

- 사업목적 및 필요성
 - 자녀 관점에서 가족 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 필요
 - 지역단위 자녀 교육기관, 상담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으로 사전예방, 원인해결형 사례관리 접근 강화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자녀 생활의 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정서적 접근을 통한 전 방위적

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
- 교육기관 소재 행정구역에 설치·운영 중인 관련 전문기관 연계·협력 사업으로 추진(청소년 수련관, 건강가정지원센터, 보건소, 의료기관 등)

5-9. 안심 교육 환경 조성

- 사업목적 및 필요성
 - 2030세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의 수업결손 심화에 따라 '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'의 일환으로 준비물 없는 학교 사업 추진(학부모의 학습준비물 구비 부담 경감)
 - 아동·청소년의 접근 용이성을 고려한 온라인 전문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
-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
 -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사업을 시범실시 후 확대
 - 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운영(지역 일자리 창출사업, 자활공동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)
 - 지역 아동·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온·오프라인으로 조합하여 제공